



안치홍

## 호랑이 발목잡는 '부담감'

2루수 골든글러브 안치홍 실수 연발로 '불안불안'

투수 절반 새 얼굴... '공격 피칭' 못하고 끌려다녀

부담감과 싸움이 KIA의 5월을 좌우한다. 잔인한 4월을 보낸 KIA는 라미레즈를 시작으로 한 부상병들의 복귀와 함께 반전의 5월을 기다리고 있다.

부담감이 호랑이 군단이 우선 넘어야 할 적이다. 실수에 대한 부담감,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KIA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2루수 골든글러브 수상자 안치홍은 개막 첫 날부터 자존심을 구겼다. SK와의 개막전 1회 무사 1루에서 박재상의 병살 타성 타구를 놓치며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안치홍은 5회에도 박정권의 평범한 타구를 놓쳤다. 팀은 2-6으로 패했다.

안치홍은 전경기에 출장했던 2010년 그리고 골든글러브를 거머쥔 지난해 한 자릿수 실책(9개)에 머물며 안정된 수비를 자랑했던 내야의 핵심, 허리통증을 딛고 캠프에서 수비 연습에 공을 들이며 '넘어야 할 산' SK 정근우와의 승부를 준비했지만 첫 맞대결에서부터 실수 연발이었다.

지난해 SK와 준플레이오프에서 실책을 기록하며 2011시즌을 어렵게 마무리했던 안치홍은 2012년 다시 만난 SK와의 첫 경기에서 실수를 연발했다. 출발부터 삐걱거린 안치홍은 이후 불안불안하게 2루를 지키고 있다. 실패에 따른 부담감이 안치홍을 누르고 있다.

안치홍은 "첫 경기에서부터 큰 실수를 했다.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과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면서 수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빨리 털어내도록 하겠다"고 실수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운드의 부담감이 극대화하는 복병이다. KIA 마운드에는 올 시즌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3일 1군에 등록된 12명 투수중 절반이 새 얼굴이다. 앤서니·라미레즈 두 외국인 선수를 비롯해 박지

훈·홍성민·한승혁에게 프로 데뷔 시즌, 좌완 진해수에게는 군복무 이후 첫 시즌이고, 김진우도 복귀 후 정식으로 출발하는 해다.

무한 경쟁 속에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던 마운드는 선동열 감독이 주문하는 공격적인 피칭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운드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어린 선수들은 물론 고참급 선수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팀 최고참 유동훈도 지난해 '부담감'에 무너졌었다. 유동훈은 "자신감이 중요하다. 나도 지난해 초반 자신감을 잃으면서 아쉬운 한 해를 보냈다. 팀이 초반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후배들이 좋은 공을 가지고도 자신있는 피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선배들도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긍정과 자신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① 덕아웃 말말말

▲세월아 = 선동열 감독, 선수시절 피흘린 갯수도 적는데 그 상황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선 감독은 국내에서 11시즌 동안 28개의 피흘린만을 기록했다.

▲야구 보느라 눈이 다 아프네 = KIA 3연전 해설을 위해 광주를 찾은 양상문 해설위원, 비로 이를 연속 경기가 취소되면서

### 최희섭 "나도 태어났을 땐 평범한 체구였어"

속소에서 체질 돌려가면서 다른 구장의 야구만 봤다며.

▲태어난 뒤부터요 = 언제부터 키가 컸느냐는 질문을 받은 내야수 최희섭, 태어났을 때는 평범한 체구였다면서.

▲경기는 시작해야 하는 거죠 = 경기 전 그라운드를 내다보던 최재진, 2일 해가

뜨는 가운데 소나기가 오락가락 하면서 KIA 경기가 우천취소됐다.

▲안타가 안 맞는데 필요 = 올 시즌 9번과 2번 타순을 오가고 있는 김선빈, 타순에 따른 부담감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타가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을까 물어볼 여지가 없다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FC "어린이들에 승리 선물"

내일 광주서 대구와 K리그 11R  
"고공 폭격으로 삼바축구 꺾겠다"

4월 지옥의 원정 레이스를 끝낸 광주가 삼바축구를 상대로 재도약을 준비한다.

광주 FC는 5일 오후 8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구 FC와 2012 K리그 11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달 6경기 중 4경기를 원정경기로 치르며 힘겨운 4월 보냈다. 체력적인 부담 속에 인천, 전남, 성남, 전북으로 이어진 지옥의 레이스였다.

여기에 박기동, 김동섭, 슈바, 박호진 등 주전 선수들의 부상 공백까지 겹치면서 6경기 성적은 3무3패, 초반 돌풍이 주춤하면서 성적은 9위까지 떨어졌다.

아쉬움이 남는 4월이었지만 광주는 3경기 연속 2골을 넣으며 제주(20점), 부산(16점)에 이어 득점 부문 3위를 달리고 있다. 또 지난 성남전과 전북전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3골을 넣는 등 장신군단의 위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도 위안이다.

광주와 대구는 시민구단의 자존심을 걸고 5월 첫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넉넉지 못한 재정 속에 지명도 낮은 국내 선수와 주목받지 못하는 외국인 선수들로 꾸려진 광주와 대구(7위)는 한자릿수 순위를 지키며 시민구단의 매서운 힘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의 주무기는 패기다. 여기에 지난해 쌓은 프로리그 경험을 통해 한층 성숙해졌다.

대구에는 축구강국 브라질 출신 모아시르 페레이라 감독에게 사령탑을 맡기며 변신을 시도했다. 브라질 청소년대표 출신 지넨손과 레안드리뉴 등 2명의 공격수를 영입하고 또 지난 시즌 임대 신분이었던 마테우

스를 정식 이적시키며 삼각변대를 완성했다.

광주는 지난해 대구를 상대로 2전 전승을 기록했다. 역사적인 개막전에서 이뤄진 첫 만남에서 광주는 펠레스코어로 승리하며 화끈한 신고식을 치렀다. 대구 원정에서도 2-1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쟁겼다.

다시 만난 두 팀의 대결은 장신군단과 삼바축구의 만남이다. 높이와 스피드 싸움이 다.

광주는 복이(201cm)를 비롯해 유종현(196cm), 박기동(191cm), 이웅, 김동섭, 슈바(이상 187cm), 임하람(186cm), 정우인(185cm) 등 주전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190cm다.

여기에 기동력이 뛰어난 주앙파울로, 이승기, 김은선 등이 미드필드를 지키며 팀의

공격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세트피스 특점이 잇따라 터지는 등 올 시즌 광주가 기대했던 전술이 마침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장신군단에 맞서는 대구는 작지만 빠르다. 184cm의 이진호를 원톱으로 한 4-2-3-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뒤에는 지넨손(165cm)과 레안드리뉴(169cm)가 포진해 또 다른 해결사로 나선다.

빠른 볼 처리를 통한 높은 볼점유율, 스피드를 이용한 순간 역습에도 강하다. 또 박종진(170cm), 강용(178cm), 이지남(183cm), 유경렬(182cm) 등 높이보다는 몸싸움에 능한 선수들이 많다.

광주가 대구의 빠른 발을 묶고 고공폭격을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화순·효천·동성·진흥 '황금사자'를 품어라

고교야구 왕중왕전 내일 개막

경북고로 13일 첫 경기를 갖는다.

제66회 황금사자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이 5일 개막한다.

이번 대회는 내달 3일까지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계속되며 전라권 주말리그 1위 팀인 화순고와 지난해 우승팀 충암고 등 총 35개팀이 참가해 우승컵을 놓고 다툰다.

전라권에서는 화순고·효천고·동성고·진흥고가 출전해 모교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대회는 4일 오후 4시 선린인터네트고와 인창고의 경기를 시작으로 막이 오르며 진흥고와 화순고는 12일 각각 상원고와 배재고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른다.

동성고와 효천고의 첫 상대는 울산공고와

다르빗슈 AL 4월 신인상

미국프로야구(MLB) 텍사스 레인저스의 일본인 투수 다르빗슈 유(26)가 2일(현지시간) 아메리칸리그(AL) 4월의 신인상을 받았다.

다르빗슈는 지난달 5번 선발출장해 4승을 거뒀다.

삼진 33개에 볼넷은 17개에 그쳐 33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18을 기록했다.

레인저스의 외야수 조시 해밀턴은 아메리칸리그 올해의 선수상 영예를 안았다.

해밀턴은 22개 경기에 나서 9개 홈런과 25타점, 타율 0.395를 작성했다. 연합뉴스

**정동진&낙산사&양떼목장 기차여행**  
**무궁화호(무박 2일)**  
**5월4일(금)**  
**저녁 8시30분 광주역출발**  
**1인 여행비 성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  
 기차표/항공권/승선권/국제선할인 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 섬여행   | 해외여행                                     |
|---|--|
| 1박2일 <b>홍도/흑산도</b> ₩169,000원~                                 | 2일 <b>대마도 크루즈</b> ₩239,000원~             |
| 2박3일 <b>울릉도/독도</b> 5월 3일,17일 ₩365,000원~ 5월 11일,25일 ₩385,000원~ | 5일 <b>후쿠오카 크루즈</b> ₩580,000원~            |
| 1박2일 <b>한라산등반·올레길 블루나래호</b> ₩120,000원~                        | 5일 <b>태항산/태산 KE</b> ₩990,000원~           |
| 1박2일 <b>제주도 블루나래호</b> ₩140,000원~                              | 6일 <b>태항산 위동혜리(매주목)</b> ₩650,000원~       |
| 2박3일 <b>제주도 블루나래호</b> ₩160,000원~                              | 4일 <b>청 도 위동혜리(매주토)</b> ₩330,000원~       |
| 1박2일 <b>보길도/청산도</b> ₩160,000원~                                | 5일 <b>청도/장보고유적지 위동혜리(매주목)</b> ₩450,000원~ |
|   | 5일 <b>청도/태산/곡부 위동혜리(매주화)</b> ₩460,000원~  |
|   | 5일 <b>장가계 MU</b> ₩1,200,000원~            |
|   | 4일 <b>장가계 MU</b> ₩1,100,000원~            |
|   | 4일 <b>황산 MU</b> ₩670,000원~               |